

봄맞이 첫 단추, 부피 큰 겨울옷과 침구 정돈하기

봄이 코앞에 다가오면 주부들은 분주해진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봄맞이 집안단장을 해야 하기 때문. 집안 단장의 첫 단추가 정리정돈이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것이 겨울옷과 침구를 정리해 보관하는 일. 부피는 줄이고 손상이 가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글_김희성 기자(매거진 THE BC)



패딩은 말아서, 코트는 부직포에

부피 큰 겨울 옷, 푹푹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소재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우선이다. 니트, 패딩, 모직, 모피, 가죽 등으로 분리해 그에 맞는 보관법을 찾아보자. 우선, 니트는 잘못 보관하면 늘어져 원상복구가 어렵다. 옷걸이에 걸어두기 보다는 접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접을 때 늘어지기 쉬운 소매 부분은 돌돌 말아주는 것도 좋다.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곰팡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니트 사이사이에 흰 종이나 신문지를 끼워가며 접으면 눅눅함이 줄어들는다. 보풀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접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 보풀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일회용 면도기로 니트의 결을 따라 살살 쓸어 내려가며 보풀을

제거한 뒤에 보관하자. 부피감을 줄이고 싶다면 가벼운 니트 위에 무거운 니트를 쌓고, 니트 특유의 포근함을 살리려면 무거운 니트에서 가벼운 니트 순서로 쌓는다. 모직코트는 드라이클리닝을 한 뒤 보관하는데, 비닐커버를 벗겨서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등에서 이를 정도는 환기 시킨 뒤 옷장에 놓자. 옷에 남은 기름기가 세균과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시 사용하는 약품은 실내 공기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통풍을 마친 모직 코트는 부직포 등 통풍이 되는 커버를 씌워 옷걸이에 걸어 보관한다. 부피를 좀 줄이고 싶다면 커버 1장에 옷을 2~3벌씩 걸어서 넣으면 압축되는 효과가 있다.

별도의 커버가 없다면 뒤집어 걸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가죽과 모피는 세탁이 어려운 종류다. 먼지를 꼼꼼히 털어 통풍 좋은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다. 가죽은 통풍이 되는 커버를, 모피는 털이 눌리지 않도록 실크 소재 보자기를 씌워 보관한다. 가죽과 모피는 습기에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옷장 문을 간간히 열어 환기 시켜주고, 방습제를 함께 넣어 보관한다.

패딩은 지퍼를 모두 채우고 양 소매를 옷감 안으로 집어넣어 부피를 최소화 한 뒤 돌돌 말아서 보관하자. 옷걸이에 장기간 걸어 둘 경우 패딩 충전재가 하단으로 쳐져 모양이 변형될 수 있으니 걸어 보관하는 방법은 피한다. 돌돌 말은 패딩에 구멍 난 스타킹을 이용해 씌우거나 묶어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세탁망 속에 차곡차곡 눌러 넣고 지퍼를 채워도 부피를 줄일 수도 있다.

겨울 티셔츠, 스타킹, 레깅스 등은 비슷한 크기와 두께별, 용도별로 구분한 뒤 접어서 투명한 지퍼 팩에 넣고 최대한 공기를 빼 납작하게 만들어 박스 등에 차곡차곡 세워 정리해 두면 필요에 따라 빼서 쓰기 편리하다.

겨울침구류 청결하게 보관하기



겨울 침구는 이불보관 전용 압축팩을 활용해 부피를 줄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외에도 접은 이불을 차곡차곡 쌓은 뒤 메밀베개 등 무거운 베개를 올려두면 눌리는 효과가 있어 공간의 여유가 생긴다. 이불장 양 옆, 사이사이 비는 공간에 다운 소재의 이불을 돌돌 말아 스타킹 등으로 묶어 부피를 줄인 뒤 끼워 넣는 방법도 이불장 공간 활용에 좋다.

알다시피 이불은 집먼지 진드기의 온상이다. 포근함과 청결함을 유지하자면 이불 소재에 따라 세탁방법을 선택해 세탁 한 뒤 보관해야 한다. 덕다운 이불은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이용해 빨 뒤 팡팡 두들겨 말려서 부피감을 살리고, 워셔블 처리가 되지 않은 솜이불과 양모이불은 세탁소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물세탁을 하면 솜이 붓

쳐 보온성이 떨어지기 때문. 극세사 이불은 물빨래가 자유롭다. 다만, 보풀이 생기는 특성이 있으니 세탁망에 넣어 빨래하는 것이 좋다. 이불은 충전재 사이에 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루세제보다는 액체세제를 사용하고, 여러 차례 헹궈 건조한 뒤 보관하자.

겨울옷과 침구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싶다면 습도 50%, 온도는 25℃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왕도다. 자외선차단도 기본이다. 최근에는 철지난 의류나 침구류를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많다. 박스 1개 당, 1벌 당 또는 클리닝 비용에 보관 금액을 추가 하는 방식 등 업체에 마다 다르니 꼼꼼히 비교하고, 보관물품 손상에 대한 A/S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겨울옷과 침구를 세탁하고 보관·정리하는 일은 꼬박 며칠을 투자해야 하는 수고로운 일이자, 해마다 거쳐야 하는 일이다. 올해부터라도 온가족이 힘을 보태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TIP

보관 전에 옷장 속 청소는 필수!

옷을 보관할 준비를 끝냈다면 셔랍 속과 옷장 안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야 묵은 먼지가 옷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물 걸레질을 하면 습해질 수 있으니 정전기청소포를 사용하거나 구멍 난 스타킹 등을 걸레 삼아 닦으면 작은 먼지까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습한 여름을 대비해 옷장과 셔랍에 제습제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박스에 담아 보관할 예정이라면 습기에 약한 옷은 종이박스에, 통풍이 중요한 옷은 부직포 박스를 선택하자. 지리만 차지하는 여행 가방이 있다면 이를 박스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좋다. 박스든 셔랍이든 옷 사이사이에 종이를 한 장씩 끼워두면 옷감이 상하는 것도 방지하고 제습 효과도 있다.

